



배우 소지섭

Contents

일의 온도, 노동 속 사람을 읽다

고용노동부 소식지 「월간 내일」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51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
기획·제작 경성문화사

고용노동부 소식지 「월간 내일」의 저작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월간 내일
웹진 바로보기

36.5도의 일상

삶의 현장에서 기록된 나의 일, 우리의 일



04

일의 온도

일의 온도를 조절하는 두 가지:
묻는 용기, 설명하는 성의

08

일터의 열정지수

머무는 시간보다 깊어지는 몰입, 더 유연한 일터로!
(주)유니정보

14

MOEL 인사이드

놓치기 쉬운 청년정책, 이제 한 권으로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

18

시시콜콜 상담소

2027년 소득기반 고용보험
무엇이 달라지나요?

내일의 체감온도

정책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변화



20

함께하는 MOEL

디딤돌 하나, 길 전체를 밝히다
청년미래플러스 참여자 최지원 씨

24

현장의 목소리

이름표에서 안전모까지
국적은 달라도 땀의 가치는 같습니다

28

공감 1도

사람을 중심에 둔 취업지원으로 새로운 출발을 돕다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과

32

글로벌 통신

노동시간은 길이가 아니라 밀도로 말한다
각국의 주4일 일하는 풍경

34

MOEL 뉴스

쉼표의 온기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작은 쉼터



38

내일 인터뷰

용기가 두 번째 페이지를 연다
배우 소지섭

42

내일의 일

온라인 세상에서의 마지막 배웅
디지털 장의사

44

두근두근 내일 여행

일과 쉼의 경계에서 만난 힐링 로드
마곡

50

셰프의 제철한끼

가을 대하 깍두기를 만나다
9월의 붉은 감바스

52

내일 톤

- 공정한 보상
- 나의 세계

54

게시판



일의 온도를 조절하는 두 가지: 묻는 용기, 설명하는 성의

몇 해 전 한 기업 강연에서 관리자 한 분이 털어놓은 고민이 기억에 남는다. 신입 직원에게 일을 맡겼더니 “이걸 왜 하는지 여쭙봐도 될까요?”라고 묻더라는 것이다. 그는 순간 당황했다고 한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던 자신의 신입 시절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권위에 대한 도전인가 싶어 서운했다는 그에게, 나는 오히려 이런 사건들이 좋은 신호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 질문을 ‘도전’으로 받아들일지 ‘신호’로 받아들일지에 따라 조직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말은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법이다. 해당 질문의 날카롭고 방어적이라면 반동의 언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러한 질문들은 반항이나 반동이 아니라, 일의 목적을 알아야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배운 세대의 작업 방식의 산물에 가깝다. 목적지를 알고 운전하는 사람과 모르고 운전하는 사람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된다. 왜 하는지 아는 사람은 상황이 바뀌었을 때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사소한 변수 앞에서도 멈춰 서서 다시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 실제로 그 관리자는 마음을 고쳐먹고 일의 배경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는데, 몇 달 뒤 그 신입이 팀에서 가장 믿음직한 직원이 되었다며 웃었다. “왜요?”라는 물음은 무례가 아니라, 잘하고 싶다는 뜻의 다른 표현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는 세대 간 소통의 기술을 거창한 데서 찾지 않는다. 딱 두 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설명하는 성의’다. 일을 맡길 때 배경과 목적을 한두 문장이라도 붙여 주는 것이다. “이 자료는 다음 주 경영 회의에 올라가는 거라, 숫자 검증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 한 문장을 붙이는 데는 십 초면 충분하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일의 우선순위와 힘을 쏟을 지점이 선명해진다. 짧은 설명이 지시를 납득으로 바꾸고, 납득한 사람은 시킨 것 이상을 해낸다. 설명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일터에서 가장 수익률 높은 투자다.

다른 하나는 ‘묻는 용기’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고, 궁금한 것을 묵히지 않고 묻는 것이다. 질문했다가 부족해 보일까 봐, 혹은 바쁜 선배를 귀찮게 하는 것 같아 혼자 끙끙대다 마감 직전에 문제가 터지는 경우를 많이 본다. 그러나 일터에서 진짜 위험한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른 채로 시간이 흐르는 것이다. 삼십 분이면 풀렸을 문제가 사흘을 묵히면 사고가 된다. 그러니 질문을 미루지 않는 것은 나를 위한 일이기 이전에 팀을 위한 일이다. 그리고 이 용기는 혼자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질문을 반기는 선배, “그건 좋은 질문이네요”라고 받아 주는 상사가 있어야 가능해진다. 질문이 환영받는 조직에서는 실수가 일찍 드러나고, 질문이 눈치 보이는 조직에서는 실수가 조용히 자란다. 묻는 용기와 설명하는 성의는 이렇게 서로를 키운다.

여기에 한 가지를 보탠다면, 피드백은 사람이 아니라 일에 대해서만 하자는 것이다. “요즘 애들은”으로 시작하는 말과 “꼰대들은”으로 시작하는 말은 모두 일이 아니라 사람을 겨냥한다. 그 순간 대화는 소통이 아니라 전선이 되고, 고칠 수 있는 문제가 고칠 수 없는 감정으로 변진다. “이 보고서의 이 부분은 근거가 더 필요하다”는 말은 사람을 키우지만, “너희 세대는 끈기가 없다”는 말은 사람을 닫게 만든다. 일에 대한 지적은 받아들일 수 있어도, 존재에 대한 단정은 받아들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세대라는 큰 이름표를 떼고 나면, 결국 같은 일을 잘 해내고 싶은 두 사람이 남는다.

오늘도 묻기를 망설이다 용기를 낸 분들, 바쁜 와중에 한 줄이라도 설명을 보낸 분들께 응원을 전하고 싶다. 소통의 기술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들리지만, 그 실체는 이런 작은 성의들의 반복이다. 대단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없어도, 오늘 내가 던지는 질문 하나와 설명 한 줄에서 변화는 시작된다. 그 성의들이 쌓여 일터의 온도를 만들고, 그 온도가 결국 일의 결과를 만든다. 함께 일을 잘한다는 것은 결국, 서로를 일하기 좋은 동료로 만들어 주는 일이다.

글쓴이 임흥택 작가

조직 문화와 세대 간 소통, 노동 현장의 변화를 날카로우면서도 재치 있게 포착해 온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기업 컨설턴트이다. 대표작으로 <90년생이 온다>, <관종의 조건>, <2000년생이 온다> 등이 있다.



머무는 시간보다 깊어지는 몰입, 더 유연한 일터로!

(주)유니정보

flexibility

(주)유니정보는 '회사가 직원의 시간을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몰입이 시작된다'는 믿음을 실천해 왔다.
유통·솔루션 분야에서 성장을 거듭한 유니정보는 정시 퇴근과
유연한 제도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일상과 업무가
조화를 이루는 일터를 만들어가고 있다.

글 김주희 사진 오충근





시간을 존중하는 정직한 약속, 일터의 몰입과 지속 가능한 내일을 만듭니다



시간을 가치로 바꾸는 경영의 힘

유니정보는 바코드 스캐너, PDA·핸드터미널, POS 및 키오스크 공급부터 소모품 자체 생산,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까지 아우르는 종합 솔루션 기업이다. 단순한 장비 유통을 넘어 유통·생산·기술을 결합한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주규식 대표는 과거 개발자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창립 초기부터 ‘야근 없는 회사’를 목표로 삼았다. “야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더군요. 과거 개발자로 일하며 밤을 지새우던 시절을 겪어봤기에, 초기부터 직원들에게 눈치 보지 말고 정시 퇴근하라고 독려했습니다. 회사가 직원의 시간을 존중해야 직원도 근무시간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근무하는 것보다 정해진 시간 안에 업무에 집중하고, 업무 외 시간은 개인과 가족을 위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재 확보와 장기근속을 위해서는 좋은 근무 환경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보상 수준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지가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월 1회 2시간 조기 퇴근하는 ‘패밀리데이’ 제도를 도입한 결과, 직원 만족도와 조직 분위기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고, 이직률도 2023년 27.9%에서 2025년 16.7%로 크게 낮아지는 등 뚜렷한 변화를 확인했다. 이를 디딤돌 삼아 회사는 일터혁신 컨설팅을 거쳐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발걸음을 넓혔다.

맞춤형 시계로 짜 올린 업무 효율

변화의 발걸음은 조심스럽지만 단단하게 내디뎠다. 영업, 온라인 고객 응대, 제조, 물류, A/S, 연구 개발 등 직무 성격이 판이한 환경에서 일률적인

단축은 오히려 업무 공백을 낳을 수 있었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거쳐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회사는 부서별 업무 특성에 맞춘 맞춤형 운영 기준을 세웠다. 이를테면 연구소는 매주 금요일 2시간 단축 근무를 하고, 물류팀은 순번제를 통해 단축일을 자율 선택한다. 라벨사업팀은 요일을 지정해 운영하며, 영업·온라인서비스 부서는 업무가 집중되는 월요일을 피해 단축일을 배치했다. 주중에 단축 근무를 소화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주에 최대 4시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더했다. “일터혁신 핵심은 ‘덜 일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통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실제 운영을 통해 조금씩 해소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줄인 것이 아니다. 자체 영업 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하고 반복·중복 업무를 정돈하며, 필요 부서에는 인력을 추가로 총원하고 신규 장비를 도입하는 등 생산 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나란히 진행했다.

제도적 뒷받침이 이끈 ‘일·생활 균형’의 안착

유니정보의 변화는 다양한 사내 제도들과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일·생활 균형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토대가 되고 있다. 성별과 관계 없이 활용하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시간 단위 연차, 시차출퇴근제, 패밀리데이가 탄탄한 뼈대를 이룬다. 특히 기혼·미혼, 육아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원 누구나 자신의





직원의 시간을 가치로 바꾼 혁신, 유니정보가 완성하는 일·생활 균형의 미래입니다

생활 여건에 맞게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었다. 과거 새로운 사업 확장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아쉬움을 발판 삼아 직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경영진의 의지가 제도의 단단함을 더했다. 일하는 시간의 변화는 일터의 풍경과 직원들의 일상까지 바꾸고 있다. 직원들은 단축된 시간을 자기계발과 가족과의 저녁에 쓰며 일·생활 균형을 만끽하고 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업무를 완수하려는 몰입도 역시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이와 함께 평가와 소통 방식 역시 시간보다 결과와 효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며 내부 신뢰를 한층 더 두텁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내일을 준비하는 활기찬 발걸음

제도의 안착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도 유니정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실제 근로시간과 업무성과를 꾸준히 살피는 한편,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현장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보완하며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부서마다 업무 특성이 다른 만큼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 각자의 업무에 맞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되 그 기준과 이유를 구성원들과 충분히 공유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향후 주 4일제 도입 등 추가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부터 관리자 리더십 교육까지 폭넓게 정비하며 더 밝은 내일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진정으로 좋은 일터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으며, 정년까지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걱정 없는’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직원들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더 나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직원의 시간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변화는 어느새 유니정보의 현장과 구성원의 일상까지 바꾸는 중이다. 유통과 솔루션을 넘어, 이제 이곳에는 구성원의 안정된 일상과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

놓치기 쉬운 청년정책 이제 한 권으로

고용노동부가 청년의 오늘을 단단하게 뒷받침할 종합 안내서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을 발간했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 금융과 복지는 물론 마땅히 지켜져야 할 근로계약서와 최저임금의 가치까지
한 권에 밀도 높게 담아냈다.
글 편집실 자료 고용노동부



청년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 지도

무수히 쏟아져 나오던 청년 정책들은 복잡한 법률 용어와 파편화된 정보의 벽에 막혀 정책 지원이 절실한 청년들에게 닿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 7월 29일 발간된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은 이러한 정보의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일터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가치와 권리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당시 안내서 제작에는 사회적기업 '소소한 소통'과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이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정보약자와 장애인을 포함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들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매끄러운 정책 문구 이면에 숨겨진 청년들의 실제적 고민과 노동 현장의 맥락을 정직하게 담아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청년이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자료집을 통해 청년들이 일자리 정책을 한결 쉽게 접하고, 삶의 변화를 만드는 정직한 참여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발간 취지를 밝혔다.

청년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다

안내서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은 단순한 정보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청년의 일상과 노동 생애주기를 촘촘히 조명했다. 취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사회초년생으로 자리를 잡기까지 필요한 핵심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구성됐다. △일자리 지원사업 △노동·안전보건 상식 △일·가정 양립제도 △청년 뉴딜 △주거·교육·금융·복지 등 복잡한 제도를 청년이 자신의 상황에 맞춰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안내서를 온라인 플랫폼(고용노동부 누리집, 고용24, 온통청년)에 게시함과 동시에 청년들의 실제 삶의 궤적이 닿는 생활 공간 전반에 직접 비치했다. 전국 청년센터와 공공도서관은 물론,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땀 흘리며 무채색의 나날을 견뎌내던 스터디 카페(초심 등)에 비치하여 취업 준비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정책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자신만의 기적의 지도를 그려 나가는 청년들에게 이 안내서는 단순한 유인물을 넘어 자신의 정당한 노동 가치를 확인하고 권리를 찾아가는 단단한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자료집 전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소개 > 정책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리 보는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

PART 1. 일자리 지원사업, 이것만은 꼭 챙기다

구직 준비에서 노동시장 진입까지, 일자리와 직접 맞닿은 정책을 한 자리에 모았다. 현금 지원, 직업 훈련, 현장 경험까지 청년이 첫발을 내딛는 순서대로 살펴볼 수 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을 잠시 멈춘 청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참여수당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청년과 기업 모두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장기 근속을 유도한다.
청년일경험지원	인턴형과 프로젝트형 등 다양한 형태로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직접 손에 잡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돕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경험·기간 등 조건에 따라 1유형·2유형으로 구분해 상담부터 훈련·취업까지 단계적으로 돕는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국가가 인정하는 직업훈련비를 1인당 5년간 300만~500만 원까지 지원해 자기계발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PART 2. 주거·교육·금융·복지, '살아가는 기반'과 함께

일자리 정책이 곧 청년정책의 전부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반영해 다음과 같은 생활밀착 정책을 함께 담았다.

주거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임대주택과 월 최대 20만 원의 청년월세 지원사업으로 주거비 부담을 가볍게 한다.
교육·자격	소득 구간별 국가장학금, 저금리 학자금 대출, 그리고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의 50% 감면(연 3회) 지원 등 훈련·자격 비용을 낮춘다.
금융	목돈 마련을 든든하게 돕는 청년미래적금(정부지원금 최대 12%)과, 일·생활 자금을 위한 저금리 햇살론유스 등 실생활 금융 통로를 안내한다.
복지·문화	천 원의 아침밥, 청년문화예술패스(19·20세 공연·전시 관람비 지원),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까지 생활 곳곳의 안전망을 함께 담았다.

PART 3. 직장생활, '권리를 아는 것'에서 시작되다

취업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전제로 사회초년생이 처음 마주하는 노동 현장을 안내한다. 근로계약서 작성·확인법과 임금명세서 확인법으로 시작해, 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조건을 점검하도록 했다. 연차휴가 사용법과 해고 구제 절차도 차분히 정리해, 부당한 대면을 겪었을 때 어디로·어떻게 항변할 수 있는지 길을 잡아준다.

일·가정 양립 단위에서는 육아휴직(최대 1년 6개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하루 2시간), 배우자 출산 휴가(20일) 등 일과 가정을 함께 떠받치는 제도를 짚었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금지 및 신고 절차,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보상 신청 방법까지 안전과 권리 영역을 함께 다루었다.

노동 상식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확인,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권리 보호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대응, 해고 구제 절차 안내
일·가정 양립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안전 정보	산업재해 예방과 산재보상 신청 방법 안내

안내서 확인 경로 & 활용법

온라인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소개 > 정책자료집), 고용24(work24.go.kr), 온통청년
오프라인	전국 청년센터, 공공도서관, 스터디 카페 '초심' 등 비치처
즉시 신청	정책별 QR코드로 관련 누리집에 바로 연결 — 안내서 → 신청까지 한 번에
활용 tip	① 1부에서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일자리 사업' 먼저 확인 ② 2부에서 주거·금융·복지 등 생활 기반 점검 ③ 3부에서 근로조건·권리 항목으로 돌아와 최종 확인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
다운받기



2027년 소득기반 고용보험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용보험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뀝니다. 이번 개편은 단시간 노동자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제도 안으로 더 넓게 포괄하겠다는 변화에 가깝습니다. 적용 기준, 보수 합산, 신고 방식, 사업주 부담 완화까지 달라지는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글 편집실 자료 고용노동부



Q 소득기반 고용보험, 가장 크게 달라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가장 큰 변화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입니다. 지금까지는 노동자가 월 60시간, 즉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됐지만, 2027년부터는 소정 근로시간 대신 월 보수 80만 원 이상이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다시 말해 근로 시간이 짧더라도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주 15시간 근무자의 평균 보수와 기존 노무제공자 기준을 고려해 80만 원 기준을 정했습니다.

* 적용 기준인 월 보수 80만 원은 입법예고('26.7.10.~8.19.) 후 개정절차 진행 중



Q 아르바이트나 초단시간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나요?

A 네, 가입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금까지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근로시간 기준에 미달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이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기준이 바뀐다고 해서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준까지 함께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각 제도는 여전히 각각의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Q 여러 곳에서 일하지만 한 직장 월급이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이번 개편에서는 이런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보수 합산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받는 월 보수가 각각 80만 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여러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를 모두 합쳐 80만 원 이상이면 본인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 직장만 기준으로 보면 보호받기 어려웠던 저소득 노동자를 제도 안으로 포함시키는 장치입니다.

Q 보험료 부과와 신고 방식은 어떻게 바뀌나요?

A 보험료 부과와 신고 체계도 함께 바뀝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연 1회 '연 보수총액 신고'를 했지만, 2027년부터는 사업주가 매달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를 신고하거나,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로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보수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이 변화에 따라 보험료는 전년도 월 평균보수가 아니라 실제 월 보수를 더 정확하게 반영해 부과될 예정입니다.

Q 사업주와 현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사업주와 현장은 소득 기준 전환에 맞춰 인사·급여 관리 방식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가입 제외 대상으로 보던 초단시간 노동자라도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개편, 모바일 앱 고도화, 원클릭 보수 서비스 활성화, 챗봇 상담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랑', '위하고' 같은 신고 프로그램과 고용·산재보험 시스템을 연계해 신고 대행기관의 편의도 높일 계획입니다.

디딤돌 하나, 길 전체를 밝히다

청년미래플러스 참여자 최지원 씨

진로를 저울질하던 한 청년이 몇 달 뒤 채용 공고를 펼쳐 들었다.

2025년 청년미래플러스 사업에 멘티로 참여하며 방향을 잡은 지원 씨는 올해 1월 금융 IT 회사에
입사해, 지금은 증권시장 거래 시스템을 개발하는 신입 개발자로 출근하고 있다.

글 차유미 사진 오충근

첫 만남, 용기가 자란 자리

올해 1월, 지원 씨는 금융 IT 회사에 입사했다. 증권시장의 거래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일이다. 안정성 하나로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자리, 그 자리에 지원 씨를 세운 건 청년 미래플러스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었다. 청년 미래플러스 사업은 청년의 구직 단계부터 입사 후 경력 설계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직자 멘토링과 직무교육이 핵심이다. 시작은 평소 취업 고민을 함께 나누던 같은 과 선배였다. 1회차 멘토링을 먼저 경험한 선배는 현직자의 조언이 큰 힘이 됐으며, 고민 많던 지원 씨에게도 분명 좋은 기회가 될 거라 확신했다. 실무 중심 교육, 취업·경력 컨설팅까지 프로그램의 갈래는 여럿이었지만, 지원 씨의 발걸음을 실제로 바꿔 놓은 건 그중에서도 현직

자 멘토링이었다.

“이전까지는 비슷한 처지의 취업 준비생들과 주로 소통하다 보니 시야가 좁아지기 쉬웠는데, 현직에 있는 멘토들의 넓은 시각과 조언을 꼭 구하고 싶어 참여를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마주한 첫 회차에서 지원 씨는 진심을 꺼내 보였다.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휴학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지원 씨의 경험을 차근차근 살핀 멘토는 머뭇거림 없이 답했다. 쌓아온 것들이면 곧바로 공채를 준비해도 충분하다고. 그 한마디에 지원 씨의 발걸음에는 새로운 힘이 실렸다.

“멘티들을 여럿 이끌어오신 멘토의 객관적인 안목을 믿고 용기를 내어 취업 준비에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확신은 한 사람의 목소리를 빌려 다른



한 사람에게로 옮겨갔다. 덕분에 지원 씨가 그 날 펼쳐 든 것은 휴학 신청서가 아니라 채용 공고였고, 멘토의 판단은 정확했다.

세 번의 멘토링이 다진 실전

멘토링의 구성 자체는 단순했다. 첫 회차에서 방향을 세우고, 이후 자기소개서 첨삭과 모의

**제가 멘토링을 통해 큰 확신을 얻었듯,
누군가의 시작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주는
실무자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면접으로 각자에게 필요한 빈칸을 채우는 3회차. 그런데 그 짧은 호흡 안에 담긴 밀도는 남달랐다.

짧은 준비 기간이 주어진 코딩 테스트가 좋은 예다. 지원 씨가 고안한 풀이를 내밀면 멘토는 더 효율적인 접근과 개선점을 짚어 줬고, 그렇게 주고받음이 반복되며 문제 해결 역량은 눈에 띄게 단단해졌다. 무엇보다 멘토는 3회차가 끝난 뒤에도 “더 필요하면 이어가자”며 추가 멘토링의 문을 활짝 열어 두었다. 자기소개서는 그렇게 다시 쓰였다.

“제가 구현했던 기술적인 고민과 성과들을 실무자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었고, 제 경험의 가치를 더욱 명확하게 담아내는 법을 배운 덕분에 서류 전형부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채용 전형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멘토의 목소리는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가 스스로를 의심할 때마다 멘토는 “최지원 멘티라면...”이라는 말로 다시 확신을 심어 줬다. 불안 속에 놓인 취업 준비생에게 칭찬과 격려만큼 강력한 원동력은 없다고, 지원 씨는 지금도 그렇게 믿는다.

사실 멘토와 함께했기에 비로소 알게 된 것이 있다. 자신의 경험이 현직자의 눈에 어떤 무게로 읽히는지를. 그 무게를 익힌 덕에 지원 씨는 서류 전형부터 순항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합격이라는 반가운 결과 뒤에는 그렇게 한 문장 한 문장을 함께 다듬은 시간이 포근하게 놓여 있었다.

멘토가 그려 준 개발자의 지도

예전의 지원 씨는 ‘최신 기술을 얼마나 넓게 경험했는가’가 경쟁력이라 믿었다. 포트폴리오도 그 믿음대로 꾸려졌다. 그런데 멘토링을 통해 알게 된 실무의 기준은 달랐다. 기술의 화려함보다 ‘왜 그 기술을 택했는지’에 대한 근거와



코드의 안정성, 철저한 테스트로 완성되는 검증 과정이 먼저였다. 지금 지원 씨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거래 시스템의 현장에서 그 가르침을 매일 몸으로 확인하고 있다.

어떤 질문에도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인프라를 한 줄기로 꿰뚫던 멘토의 모습은 지원 씨의 꿈을 한층 키워 줬다.

“소프트웨어 레벨뿐만 아니라 더 로우 레벨인 하드웨어 구조,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시스템 인프라까지 전 과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연결 지을 수 있는 올라운더 엔지니어로 성장해야겠다는 직무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원 씨의 다음 행선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 안정성과 신뢰를 책임지는 개발자, 그리고 언젠가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줄 수 있는 선배다. 길을 먼저 걸어본 이로써 비슷한 꿈을 꾸는

청년들에게 전할 말을 묻자 그의 대답은 명료했다.

“그게 무엇이든 저는 청년미래플러스 멘토링 프로그램에 꼭 참여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오랜 시간 업계에서 경험을 쌓아오신 분들의 시각을 공유받는 것만으로도, 한 단계 성장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가 멘토링을 통해 큰 확신을 얻었듯, 누군가의 시작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주는 실무자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누군가 놓아 준 디딤돌 하나가 지원 씨를 취업의 문 앞까지 밝게 이끌었다. 이제 그는 그 돌 위에 서서 자신의 돌을 정성껏 다듬고 있다. 디딤돌은 그렇게 길이 된다. 한 사람이 환하게 건너간 자리에서, 또 한 사람의 길이 따뜻하게 시작되고 있으니.

이름표에서 안전모까지 국적은 달라도 **땀의 가치**는 같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은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캠페인과 제도개선, 두 갈래 길로 현장을 바꿔가고 있다

글 편집실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2026. 8. 5. 충남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 아산에서 다시 뭉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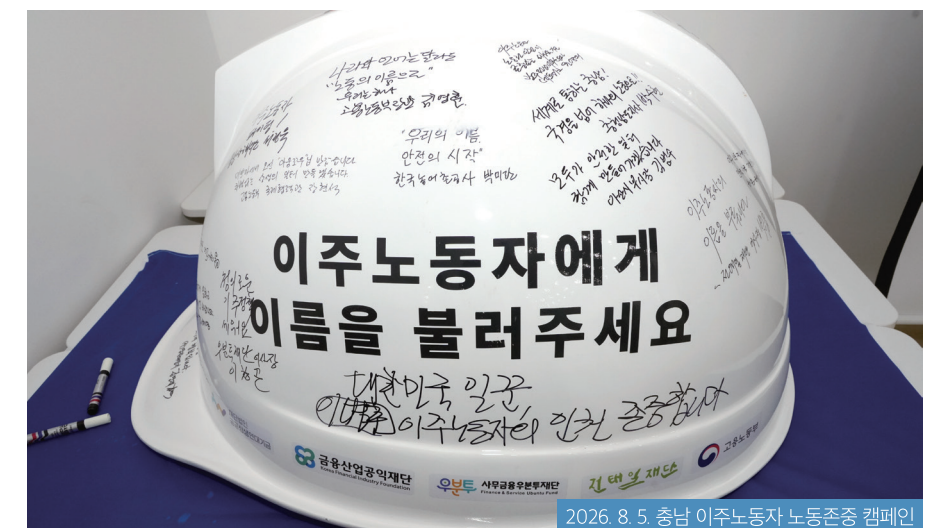
8월 5일 오후, 충남 아산의 충남공동체플랫폼 ‘아우름’. 산업재해로 숨진 이주노동자들을 기리는 묵념으로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 in 충남’이 시작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현 충남도지사, 노사 단체 관계자와 이주노동자 150여 명이 참석해 대형 안전모에 서명하고, 각자의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를 전달하며 노동자의 이름을 부르는 일터를 다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형 안전모에 “나라와 언어는 달라도 노동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날 행사에서 한 이주노동자가 던진 “저는 ‘야’, ‘네팔’이 아니라 ‘라마’입니다”라는 말에 참석자들의 시선이 모였다. 산업현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이름 대신 “야”, “인마”, “어이”로 부르던 관행을 끝내자는 것이 캠페인의 출발점이다. 이날 참여 사업장과 이주노동자들에게

는 각자의 이름이 큼직하게 새겨진 안전모가 전달됐다. 이름이 보이면 함부로 부를 수 없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곧 안전한 일터의 첫걸음이라는 뜻이 담겼다.

충남 지역 노동자·사용자 단체는 이 자리에서 ‘이주노동자 인권존중을 위한 충남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존재와 정체성을 인정하는 일”이라며, 국적과 체류자격을 이유로 한 차별에 맞서 안전한 충남을 만들겠다는 다짐이 담겼다. 박수현 지사는 “이주노동자는 이방인이 아니라 충남 경제를 함께 일구는 소중한 동료이자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장 한켠에서는 고용절차와 체류, 통역을 지원하는 외국인력상담센터의 상담 부스도 운영됐다.

김 장관은 “야, 너” 대신 이름을 불러주세요. 국적은 달라도 땀의 가치는 같습니다. 공장과 건설 현장부터 농어촌까지, 이주노동자는 우리 경제와 지역사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라며 캠페인의 취지를 강조했다.



2026. 8. 5. 충남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



2026. 8. 5. 충남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



2026. 8. 5. 충남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

이름을 불러주는 일, 그것이 존중과 안전의 첫걸음입니다 이름이 불리는 일터가 늘수록 우리 사회의 존중도 자랄 것입니다

완주 농가의 이름표에서 전국의 안전모로 이어져

이 캠페인의 씨앗은 1년 전에 뿌려졌다. 2025년 8월 8일, 김영훈 장관은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유희태 완주군수와 함께 전북 완주군 용진면의 외국인 고용 농가를 찾았다. 연일 이어지던 폭염 속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안전, 주거를 고용노동부와 국회, 자치단체가 함께 챙기겠다는 합동 현장방문이었다. 장관은 기존 주택을 보수해 독신자와 기혼자 모두에게 정식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주를 격려했고, 상추 재배 시설에서는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과 시원한 물 제공을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이주노동자는 더 이상

노동력이 아닌 우리의 이웃”이라며 “입는 것과 먹는 것, 쉬는 것 모두 우리나라 노동자들과 다름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조끼에 모국어와 한글로 적힌 이름표를 직접 달아주며 「이름 부르기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캄보디아에서 온 피럿 짜리아(31) 씨는 “장관이 직접 방문해 격려해 주니 마음이 따뜻해지고 더 열심히 일해하겠다고 생각했다”고 화답했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달 「인권침해 집중 신고기간(8.11.~8.29.)」을 운영하며 후속 조치를 이어갔다.

올해 4월 17일 고용노동부는 공공상생연대기금·금융산업공익재단·사무금융우분투재단·전태일재단 등 4개 노동권익재단과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열흘 뒤인 4월 27일 울산에서 첫 캠페인이 열려

이주노동자 100여 명에게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를 전달했고, 장관은 “야!, ‘너!’ 대신 진짜 이름 부르기, 존중과 안전의 첫걸음입니다”라고 기록했다. 5월 28일 광주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장의 이주노동자들이 이름과 국기가 함께 새겨진 안전모를 받았다. 6월 경북 예천을 거쳐, 그 물결이 이번에는 충남 아산에 닿은 것이다.

캠페인을 받치는 제도, 인권침해 방지대책

고용노동부는 캠페인이 한철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의 바퀴를 함께 굴렸다. 6월 4일 발표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이다. 국내 이주노동자는 110만 명을 넘어섰지만, 내국인보다 높은 산재율과 임금체불 격차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었다. 비자 연장에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침해가 뒤늦게 일부만 드러나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 대책의 목표다. 대책은 다섯 갈래다. ‘먼저 찾아내는’ 사전 모니터링이다. 이주노동자가 모국어로 참여하는 온라인 익명 설문을 상시 운영하고, 노동포털 「재직자 익명제보센터」에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항목을 신설했다. 한국 생활에 익숙한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인권리더’로 지정해 현장의 위험 신호를 전하는 역할도 맡긴다. 올해 50명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는 200여 명으로 늘린다. 감독도 앞당겼다. 화성·인천·안산 등 밀집 지역 100여 개 사업장에 폭행·괴롭힘 특화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지방노동관서·경찰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간 핫라인으로 중대 사건은 검찰 송치까지 공동 대응한다. 권리구제의 문턱도 낮췄다.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 14개 지방노동관서에 전담팀을 신설해 조사와 감독을 총괄하고, 피해자에게는 심터 연계와 가해자 분리, 신속한 사업장 변경을 지원한다. 공인노무사와 다국어 상담원이 고용센터 출장신고센터에서 상담과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하는 ‘신고·상담의 날’도 운영한다. 부당한 대우에 놓인 고용허가제(E-9)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하고,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도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주노동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신고와 권리구제의 문턱을 낮추고 현장의 인권침해를 더 신속하게 포착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책의 현장 인식 개선 과제에는 노동존중 캠페인이 공식적으로 담겼다. 이름 부르기 운동과 함께 작업복·방한용품 나눔, 모국어 메뉴판과 포크 제공 같은 생활 밀착형 과제들이다. 문화를 바꾸는 캠페인과 사각지대를 메우는 제도, 두 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굴러가는 셈이다.



2025. 8. 8. 전북 완주 외국인노동자 고용 농가 방문

사람을 중심에 둔 취업지원으로 새로운 출발을 돕다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과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게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이다.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이하 광주고용센터) 실업급여과는 급여 지급을 넘어
수급자의 목소리를 듣고, 직업훈련과 취업서비스를 연결한다.

글 차유미 사진 오충근

급여를 넘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광주고용센터 실업급여과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인정부터 실업인정, 급여 지급에 이르는 업무를 담당한다. 업무량이 많은 데다 수급자격 판단과 민원 응대가 동시에 이뤄지는 만큼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도 큰 부서다. 하지만 광주고용센터는 오히려 이러한 업무 현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다. 김성섭 과장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에서 역할을 끝내기보다 수급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부서가 되자는 데서 변화가 시작됐다”며 “수급자가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는 과정까지 함께할 때 직원들도 업무에서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변화의 배경에는 현장에서 마주한 구체적인 과제가 있었다. 수급자격 판단에서 담당자나 센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을 줄이고, 늘어나는 업무량 속에서도 수급자에게 필요

한 상담과 취업 지원을 강화해야 했다. 특히 반복수급자와 중장년 취약계층처럼 단순한 급여 지급만으로는 재취업이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어려운 이들에게는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했다. 이에 실업급여과는 수급자격 판단기준의 표준화와 재취업 지원을 함께 추진했다. 여러 담당자의 의견을 모으고 인접 센터와 기준을 공유하면서 광주청과 관내 지청까지 판단기준을 확장했다. 광주 지역의 통근 여건 등을 고려한 자체 판단기준도 마련했다. ‘같은 사안에는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은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직원들이 업무에 더욱 자신감을 갖게 하는 기반이 됐다.

중장년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다

광주고용센터 실업급여과가 특히 주목한 대상은 반복수급자와 50~60대 수급자다. 지역의 산업구조와 구직자의 특성을 고려하면 중장년층에





맞춘 재취업 지원이 중요하다는 판단이었다. 먼저 중장년 수급자 50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기계정비, 지게차운전 등 지역 산업수요와 연계된 4개 훈련과정을 마련했다. 훈련기관 역시 북구와 서구, 전남권 등 수급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선정했다. 특히 이 과정은 여러 부서가 함께 움직이는 협업 모델로 이어졌다. 실업급여과가 참여자를 발굴하고, 직업능력개발 부서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과 훈련 운영을 지원했다. 취업지원 총괄과와 중장년내일센터는 취업 알선을 맡고, 광주지역자원개발위원회는 훈련과정 공모와 심사를 담당했다. 실업급여과가 그 과정을 중심에서 조율하며 급여와 훈련, 취업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했다.

작은 변화가 만든 확실한 성과

이러한 노력은 숫자로도 나타났다. 훈련 참여자 74명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자는 30명으로 41%를 차지했고, 과정 종료 시점에는 5명이 취업 예정 통보를 받았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단순히 구직활동을 이어가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재취업을 준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훈련연장급여 제도를 적극적인 재취업 지원 수단으로 활용해 수급자 3명을 훈련과 연계한 것도 눈에 띈다. 실업급여 업무와 직업능력개발 업무를 연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현장에서 보여준 사례다. 이 같은 협업은 '광주형 시너지 2025 협업 프로젝트' 우수 협업 사례로도 인정받았다. 온라인에서도 수급자의 편의를 높였다. 50대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 가운데 모바일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담당 주무관들이 직접 취업특강 콘텐츠를 기획하고 촬영·편집했다. '알아두면 쉬운 이력서', '실전 구직활동' 등 실제 수급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2025년 8월부터 자체 온라인 취업특강을 운영했다. 총 8회에 걸쳐 267명이 참여했고, 50대 이상 재취업률은 전년 27%에서 28.9%로 상승했다. 수급자에게는 센터 방문 없이도 구직활동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직원들에게는 반복적인 방문 상담 부담을 덜어 보다 필요한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함께 배우고 연결하며, 더 나은 내일로

이러한 변화는 업무 방식에도 이어졌다. 법령·

행정해석·실무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학습조직 '쓰리피스'를 운영하며 업무 판단 기준을 다듬었고, 논의 내용은 전 직원과 공유해 일관된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제도 개선으로도 이어져 '구직급여 산정방식 개선' 등 업무편람 개정 의견 34건을 본부에 제출했다. 또한 블로그 '실업급여 꿀팁 노트'를 운영해 학습성과와 실무 정보를 조직 밖으로 확산했다. 광주고용센터는 '급여 지급'과 '재취업 지원'을 하나의 서비스로 연결해 훈련·취업알선·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표준 모델을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실업급여 창구를 재취업 지원의 출발점으로 삼아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면접확인서' 등을 구인 발굴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업무간 연결도 강화하고 있다. 실업급여라는 안전망이 생계 지원에 그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하는 것. 광주고용센터는 사람을 행정의 중심에 두고, 배움과 공유를 통해 더 나은 일자리와 내일로 이어지는 고용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다.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에서 역할을 끝내기보다 수급자가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는 과정까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노동시간은 길이가 아니라 밀도로 말한다

각국의 주4일 일하는 풍경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833시간으로 2024년(1,865시간)보다 32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제도적 보완과 문화적 변화에 힘입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지만, 국제적 기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장시간 노동 국가군에 속해 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사정은 어떨까.

글 편집실 자료 OECD, 한국무역협회, 유럽통계청



적게 일하지만 험겍게 일하지는 않는 나라

독일은 '가장 짧게 일하는 나라'로 꼽힌다. 자료에 따르면 독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약 1,332시간으로, 노동시간이 긴 편인 멕시코(약 2,205시간)보다 900시간 가까이 적고 OECD 평균보다도 훨씬 짧다. 그런데 정작 독일의 인상은 '한가한 나라'와는 거리가 멀다. 자동차, 기계, 화학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경제를 떠받치고 있고, 짧게 일하되 밀도 있게 일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어서다. 독일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시간을 채우는 것과 성과를 채우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이다.



주4일제가 없어도 이미 짧게 일하는 사회

네덜란드는 법으로 주4일제를 전면 도입한 나라가 아니지만, 현실에서는 가장 먼저 '짧은 노동사회'에 다다른 나라이다. 유럽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네덜란드의 주당 실근로시간은 32.1시간으로 EU 국가 중 가장 짧다. OECD 국가 중 파트타임 근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한데, 전체 근로자의 약 39%가 파트타임으로 일한다. 핵심은 파트타임이 주변적 선택이 아니라 생활의 표준 가운데 하나라는 점이다. 이 나라에서 덜 일한다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일을 삶 전체의 한 부분으로 배치하는 감각에 가깝다.



주4일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족도'

아이슬란드는 흔히 주4일제의 상징처럼 불리지만, 정확히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주 35~36시간 노동' 실험으로 주목받았다. 약 2,500명이 참여한 이 시험에서 노동시간은 줄었지만 생산성과 서비스 수준은 대체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개선됐다. 노동자들의 스트레스와 번아웃은 줄고,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다. 이후 노사협약이 확대되면서 전체 노동인구의 약 86%가 더 짧은 노동시간으로 이동했거나 그 권리를 확보했다. 아이슬란드의 힘은 구호가 아니라 결과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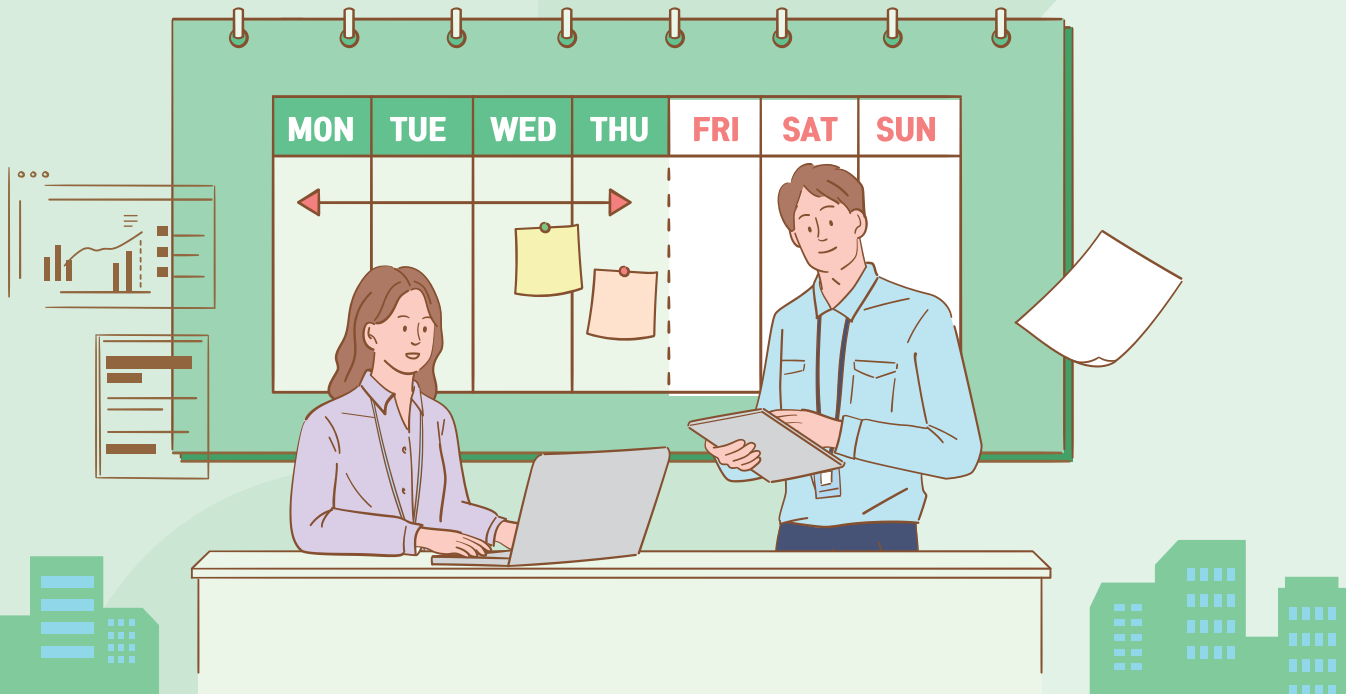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주4일제

영국은 주4일제를 가장 대중적으로 증명한 사례에 가깝다.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61개 기업, 약 2,900명이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을 20% 줄이는 실험에 참여했다. 번아웃과 스트레스가 줄고, 수면 문제와 병가도 감소했으며 이직률도 눈에 띄게 낮아졌다. 실험 종료 직후 61개 기업 중 56곳이 제도를 이어가기로 했고, 1년 뒤 후속 조사에서도 최소 54곳이 여전히 유지 중이었다. 주4일제가 복지 수준을 넘어 실제로 조직 운영이 가능한 모델임을 보여준 셈이다.

'덜 일해도 더 잘 굴러갈 수 있는 사회'를 향해

모든 나라가 같은 방식으로 주4일제를 상상하지는 않는다. 아랍에미리트 연방정부는 2022년부터 월~목 8시간, 금요일은 반일 근무하는 주4.5일제를 운영하며, 샤르자(UAE 토호국 중 하나)는 공공부문에서 금·토·일 3일 주말의 사실상 주4일 근무를 시행한다. 프랑스는 2000년(소기업은 2002년)부터 법정 주당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낮췄다. 이처럼 주4일제의 모습은 나라마다 금요일을 통째로 비우는 방식도 있고, 하루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도 있고, 법정 기준 자체를 낮추는 방식도 있다. 주4일제 논의는 '하루를 더 쉬느냐'가 아니라 '충분히 설게 가능한 제도'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1

ILO 플랫폼 노동 협약 대응 위한
국내 보호체계 마련 논의

고용노동부는 8월 1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ILO의 플랫폼 노동 협약 채택 의미를 살펴보고, AI·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와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플랫폼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내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마련과 사회보험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

카자흐스탄,
고용허가제 18번째 송출국 지정

정부는 8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카자흐스탄을 고용허가제(E-9) 18번째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하고 건설업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는 국가 간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민간 개입 없이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제도다. 정부는 외국인력 송출국을 다변화하고 현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의 송출체계와 인프라를 점검했다. 카자흐스탄은 정부·공공기관의 전담체계와 취업교육시설, EPS센터, 건강검진시설 등을 갖췄으며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협력 의지도 확인됐다.



3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안전한 병원 만든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8월 13일 인하대병원에서 병원 내 직장 내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병원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과 괴롭힘 예방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신고·상담부터 근로감독까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종사자의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의료종사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4

주 4.5일제 등
실노동시간 단축 우수사례 확산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은 8월 12일 제8차 회의를 열고 주 4.5일제와 교대제 개편 등 현장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는 교대제 개편과 신규 채용으로 근로시간을 주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였고, 에코월드팜은 AI를 활용해 주 4.5일제를 도입하고 신규 채용에 성공했다. 신천연합병원과 IBK기업은행도 노사 협의로 노동시간을 단축했다. 정부는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5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 심의·의결

정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육아·돌봄 제도를 확대한다. 8월 20일부터 자녀의 방학·휴원·휴교나 질병·사고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1~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9월 18일부터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건강상 위험이 있을 때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신설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도 축소된다.



6

김포공항 지상조업 폭염현장 불시점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8일 김포공항을 예고 없이 방문해 지상조업 노동자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장관은 주기장과 수하물처리시설 등을 살펴본 결과, 휴게시설이 작업장과 멀거나 규모가 부족해 충분한 휴식이 어려운 문제를 확인했다. 이에 한국공항공사는 설치 장소·기반시설을, 항공사와 조업사는 설치·운영비용과 관리를 분담해 공동 휴게시설을 신속히 확충하기로 했다. 장관은 폭염 시 작업중지·교대 인력·휴식 등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중견기업과 청년채용·산업안전 등 현안 논의

고용노동부는 8월 7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최진식 회장과 중견기업 대표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고용·노동정책 방향과 기업 현안을 논의했다. 김영훈 장관은 중견기업을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이끄는 핵심 축으로 평가하고, 하반기 핵심전략으로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 구축, 청년·중장년 상생 일자리 확대, 산업대전환을 통한 격차 해소를 제시했다. 기업들은 인력난, 산업안전, 근로시간 유연화, 정년연장 등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정부는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기업의 인재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8

고용노동부-인천시, 맨홀 질식사고 근절 위한 안전관리 강화

고용노동부와 인천광역시는 8월 6일 「맨홀 질식사고 근절 선언식」을 열고 공공부문 밀폐공간 작업의 중대재해 예방에 협력하기로 했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맨홀 등 질식사고로 2명이 숨지고 올해 3명이 다치는 등 사고가 반복됐다. 양 기관은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측정, 충분한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를 강화하고, 인천환경공단 맨홀 작업에 ‘사전안전확인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정부와 인천시는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전국 지방정부로 확산할 계획이다.



용기가 두 번째 페이지를 연다

배우 소지섭

한때 소지섭을 떠올리면 비장한 청년과 깊은 상처를 지닌 인물이 먼저 생각났다. 그러나 지금은 딸을 걱정하고, 친구들과 호흡하며, 추위 속에서도 가족을 찾아 나서는 아버지가 됐다. 소지섭에게 '배우'라는 일은 자신이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늘 한 걸음 나아가는 선택이었다.

글 하경현 경향신문 기자 사진 피프티원케이

용기의 있음과 없음, 그 사이의 감정

드라마와 영화의 주인공들은 모두 용기가 있다. 처음부터 용기가 넘쳐 전 지구적 구원 서사에 등장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비겁함도 있었지만 각성해 용기를 내는 이들도 있다. 어쩌면 이 시대 모든 드라마와 영화의 주제는 이 용기의 있음과 없음, 그 사이 감정의 틈을 보는 일일 수도 있겠다. 작품 안에서는 물론 모두 용기가 있지만, 실제로 연기를 하는 배우가 용기가 있는지는 쉽게 알기 어렵다. 하지만 최근 우리는 그 적절한 사례를 TV를 통해 목격했다. 2026년 모든 드라마와 영화를 통틀어 손꼽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 작품. SBS 드라마 '김부장'의 소지섭이 그러했다.

배우란 배역을 담는 그릇

소지섭은 '김부장'에서 평소에는 저축은행의 평범한 직원이자 고2의 딸을 둔 아빠다. 웬만한 다툼에 끼어들지도 않던 그는 사실 과거 코드명 '66'으로 불리던 전설적인 북한 공작원이었다. "2회에 (시청률이) 15%가 됐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20%를 넘기기에 또 '이게 뭐지? 이게 된다고?'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놀라움의 연속이었다고 할까요. 요즘에도 이런 사랑과 시청률이 가능한가 싶었어요. 아직도 얼떨떨하고 감사합니다. 액션이 먼저가 아니라 감정을 먼저 쌓고, 그 이후 액션을 보여준 지점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주연과 조연, 단역과 엑스트라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하는 모든 일이 모여
하나의 작품을 완성합니다. 그 안에서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하지만 실제 소지섭도 ‘아빠’로서의 생활감을
잃지 않을 정도로만 몸을 감량하고, 액션장면
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등 용기를 냈다.
“정말 추운 상황에서 촬영을 많이 했어요. 한파
에 양복 한 벌에 비까지 맞으면서 촬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딸이 눈앞에서 죽었는지 살았는
지 모를 때인데도 추위가 그런 감정까지 덮어
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민지를 찾기 위
해 갔던 냉동창고 장면이 가장 힘들었는데요.
연기를 못 할 정도로 추웠던 기억이 납니다.”



동료들과 나는 작품의 영광

그에게는 작품의 인기와 영광을 기꺼이 다른
이에게 돌리고, 이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용기도
있었다. 그는 인기 원동력을 극 중 친구들로
등장한 성한수 역 배우 최대훈, 박진철 역 배우
윤경호 등에게 돌렸다.

“(윤)경호는 말이 많지만 온몸으로 표현하는
연기를 잘해요. (최)대훈이는 계산해서 조리
있게 말하는 연기를 잘합니다. 저는 묵묵하게
중심을 잡는 연기를 잘해서 셋의 호흡이 좋았
다고 생각해요. 주강찬 역으로 나오는 주상욱
과도 감정이 맺힌 액션장면을 잘 소화해주었
습니다. 민지 역을 해준 (서)수민이는 촬영 첫
날 하트 모양의 캔디를 주면서 ‘잘 부탁한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어색한 부분이 그 나이의 아
버지와 딸 같아서 좋았어요.”

‘아빠’ 역할을 받아들인 배우의 선택

작품에도 용기 있는 캐릭터 ‘김부장’으로 등장

하고, 촬영현장에서 안팎으로 용기를 내지만
사실 소지섭의 용기는 이 작품을 택한 시작점
에서 가장 강렬하게 실감할 수 있다. 그의 나
이는 1977년생으로 아직 48세다. 1995년 한
의류 브랜드의 모델로 데뷔한 소지섭의 연예
계 경력도 벌써 30년에 이른다.
드라마에서 기훈의 연기를 거의 하지 않던 소
지섭은, 13년 만의 SBS 드라마 복귀작인 ‘김부
장’에서 기꺼이 ‘아빠’의 역할을 받아들였다.
그것도 심지어 고등학교 2학년, 성인이 다 된
자녀를 둔 아버지 역할이다. ‘빨리 늙음’을 걱
정해 기훈자 심지어 고교생의 아빠 역할을 쉽
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재의 분위기에서, 그
의 선택은 놀라움이자 진정한 용기로 받아들
여진다.

“예전에는 별명이 ‘소간지’라고 했었어요. 멋있
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
해야 할 것 같아서 외출을 했다가도, 다시 집
으로 돌아가 옷도 여러 차례 바꿔 입곤 했었습
니다. 지금은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팬분들이
애정으로 붙여주신 저만의 특별한 애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년이 지나도 ‘소간지’로
불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래 쌓아온 신뢰와 새로운 페이지

“예전에는 배우 소지섭이라고 하면 ‘미안하다,
사랑한다’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
제는 ‘김부장’이 그런 작품이 된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가 제 배우 인생의 첫 페
이지를 열어줬다면, ‘김부장’은 두 번째 페이지
를 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는, 용기가 있는 사람만
이 열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만끽할 수 있다. 극
안에서도 용기가 있고, 촬영 현장에서도 모두
를 받치는 용기를 냈으며, 그 작품을 선택할 때
까지도 용기에 차 있던 그의 모습은 용기가 어

떻게 한 사람 일의 결과를 바꾸어내는지 그 생
생한 목격담이 된다. 그리고 일하는 모두에게
도 용기가 중요함을 역설한다.

“담 흘리는 모든 분들을 위한 매체 <월간 내일>
의 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이번 역할을 통해 아빠까지 하면서 앞으로 더욱
많은 역할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월
간 내일> 독자분들도 제가 앞으로 보일 모습을
많이 기대해주시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
니다.”



온라인 세상에나의 마지막 배웅

디지털 장의사

한 번 올라간 글과 사진, 댓글과 영상은
생각보다 오래 남는다. 계정을 잊어버린
뒤에도, 삶의 국면이 바뀐 뒤에도,
과거의 기록은 검색창 어딘가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디지털 장의사는 이렇게 온라인에
남겨진 원치 않는 흔적을 찾아 정리하고,
개인이 스스로 지우기 어려운 기록의 삭제나
노출 최소화를 돕는 사람이다.

글 편집실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사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일러스트 AI GENERATED

내일의 일

선표의 윤기

사라지지 않는 기록 앞에 생겨난 직업

인터넷은 편리하지만, 한편으로는 좀처럼 잊
지 않는 공간이기도 하다. 오래전에 남긴 게시
물, 예전에 쓰던 계정, 무심코 올린 사진이나
댓글은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도 뜻밖의 순간
다시 호출된다. 디지털 장의사는 바로 이런 온
라인 흔적을 점검하고, 당사자가 더는 공개되
길 원하지 않는 정보가 계속 떠돌지 않도록 정
리하는 사람이다.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
사전>에서도 이 직업을 온라인에 남은 개인
기록이나 민감 정보를 찾아 없애거나 검색 노
출을 낮추는 전문가로 소개한다. 결국 이 일은
단순한 삭제 대행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기
록 관리와 평판 관리가 만나는 접점에 가깝다.
이 직업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잊힐 권리'에 대
한 사회적 관심이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우개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
성한 게시물 가운데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삭제나 블라인드 처리, 검색 결과 비노출을 지
원한다. 신청 대상은 30세 미만이며, 미성년
시기에 직접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점과 개인
정보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담당자가
게시판 관리자나 사업자에게 삭제 또는 검색
차단을 요청한다. 제도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
하다. 온라인 기록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실
수로만 남겨둘 일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다뤄
야 할 생활 문제라는 점이다.

검색 결과 뒤편에서 이루어지는 세밀한 노동

겉으로 보면 '게시물을 지운다'는 한 문장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실제 업무는 훨씬 복잡적이
다. 어떤 정보가 삭제 요청 대상이 되는지 살
피고, 어느 플랫폼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
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미 다른 곳으로 퍼진
흔적이 있다면 그 흐름도 추적해야 한다. 삭제
가 끝난 뒤에도 비슷한 게시물이 다시 올라오

지는 않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래서 디
지탈 장의사에게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에 대한 이해, 플랫폼 운영 방식과 검색 구조
에 대한 지식, 데이터 추적 능력, 그리고 민감
한 사연을 차분히 듣고 설명할 수 있는 소통
역량이 함께 요구된다. 기술직이면서도 상담
직의 성격을 함께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이 직업은 순기능만으로 설명되지는 않
는다. 안랩(AhnLab)에서는 디지털 장의사가
불법촬영물 피해나 개인정보 노출 대응에 도
움을 줄 수 있지만, 반대로 정당한 비판이나
공익적 기록까지 지우는 데 악용될 우려도 있
다고 짚었다. 정부 역시 디지털 장의사 제도를
논의하면서 불법적 활동과 부작용을 줄일 장
치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삭제 기술 자체보다 판단의 기준
이다. 피해 회복을 돕는 정당한 삭제와 사회적
으로 남아 있어야 할 기록을 가리는 부당한 개
입은 분명히 다르다. 디지털 장의사는 그 경계
를 실무에서 가장 가까이 마주하는 직업이다.

누군가의 현재를 지키기 위해

과거를 정리하는 일

디지털 장의사는 과거를 지워주는 사람이기
보다, 과거의 흔적이 한 사람의 오늘을 과도하
게 붙들지 않도록 돕는 사람에 가깝다. 온라
인 기록이 취업과 인간관계, 평판과 안전에까
지 영향을 미치는 시대, 이들의 일은 점점 더
생활 밀착형 전문성으로 바뀌고 있다. 더 쉽게
남는 시대일수록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걷어
낼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디
지탈 장의사는 그 조용한 판단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기록을 지우는 손끝의 결정 하나
하나가 결국 누군가의 다음 이력서, 다음 관계,
다음 하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이기도 하다.

온라인 디지털 장의사, 기록 지우는 직업이 아니라, 기록을 정리하는 직업이다. 디지털 장의사는 그 경계를 실무에서 가장 가까이 마주하는 직업이다.

일과 쉼의 경계에서 만난 힐링 로드

마 곡



오피스 빌딩과 첨단 연구소가 뽀뽀이 들어선 도시 서울 마곡.
업무 템을 잠시 닫아두고 싶어질 때는 조금만 시선을 달리해 보자.
업무지구에도 다채로운 결의 휴식처가 자리한다.
빌딩 숲 한가운데, 자연과 예술, 그리고 감각이 살아 숨쉬는 힐링 로드 따라가 본다.

글 김주희 사진 오충근



서울식물원

일상의 속도를 잊게 하는 초록 숨결

회색빛 콘크리트 사막에도 숨을 고를 수 있는 초록 안식처가 자리한다. 서울 마곡 업무지구의 거대한 스카이라인과 맞닿은 곳, 서울식물원이다. 첨단 기업들이 밀집한 도심 한복판에 이처럼 거대한 생태 공간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커다란 위안이다. 이곳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한없이 걸음을 늦춰야 한다. 특히 세계 각국의 식물을 만날 수 있는 온실은 다층적 스케일로 풍부한 시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온실에 들어서면, 머리 위로 쏟아지는 폭포수가 도시의 열기를 순식간에

씻어내린다. 층층이 구성된 동선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기다 보면 열대부터 지중해까지, 이국적인 풍경들이 생생한 자락을 펼쳐 보인다. 유리창 너머로 들어온 햇빛은 초록의 잎사귀 사이로 부드럽게 번지고, 식물의 수형과 색, 습도에 따라 공간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달라진다. 온실을 나와 야외 정원을 살펴보는 것도 좋다. 한국의 정취부터 계절의 변화를 세밀하게 품은 주제원을 거닐며 닫혔던 감각을 깨워보자. 고즈넉한 마루정자에 잠시 앉아 불어오는 바람을 맞이한 뒤, 이어지는 호수원의 잔잔한 수면을 따라 느긋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빌딩 숲의

차가운 시선은 어느새 열어지고 온전히 푸른 물결과 바람의 결만이 시야를 가득 채운다.

하늘이 물 위에 스며드는 감각적인 포토 스폿
소란스러운 도시의 주파수를 낮추고 싶다면, 서울식물원과 마주 보고 서 있는 이랜드글로벌 R&D센터 앞을 찾아가 보자. 최근 마곡에서 가장 감각적인 풍경을 자아내는 명소로 꼽힌다. 건물 앞을 채운 거대한 반영지 '미러폰드'는 투명한 유리 외관의 오피스 빌딩과 시시각각 변하는 하늘을 고스란히 품어낸다. 조심스럽게 물속 디딤돌을 딛고 건널 때면, 발끝으로 전해지는 물결의 서늘하고 참량이는 감촉이 복잡했던 머릿속을 깨끗이 비워준다. 잔잔한 수면 위로 드리운 건축물의 미려한 선과 자연의 빛은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전혀 다른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물가에 멈춰 서서 수면 위로 포개진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도시의 소음이 씻기듯 잦아드는 기분이다. 바람을 따라 수면 위로 은은하게 번지는 빛의 파장은 묘한 몰입감을 안겨준다. 해가 누엇누엇



서울식물원



미러폰드

저물어갈 무렵에 맞춰 간다면, 호수 위에 내려 앉은 은은한 노을빛이 또 다른 감흥으로 다가 올 것이다.

빛과 콘크리트가 빚어낸 깊은 사색의 공간

마곡의 문화적 결을 한층 깊게 만들어주는 곳은 LG아트센터 서울이다. 건축계의 거장 안도 다다오의 철학이 정교하게 빚어낸 하나의 거대한 조형물 같다. 노출 콘크리트 특유의 정제된 물성에 따스한 자연광이 스며들고, 절제된 기하학적 공간 구조를 거닐다 보면 고요한 예술적 경험이 시작된다.

여기서 가장 먼저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 곳은

단연 원형 통로 ‘튜브’다.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로 연결되는 듯한 이 터널에 머물면, 외부의 소음은 차단되고 발걸음 소리와 빛의 흐름만이 감각을 깨운다. 이어지는 거대한 ‘스텝 아트 리움’의 계단을 오르거나 곡선형의 ‘게이트 아크’도 놓치지 말 것. 서로 다른 높이와 각도에서 건물을 바라보면 같은 공간도 새로운 장면으로 다가온다. 웅장한 스케일과 볼륨이 빚어내는 공간감은 도시의 좁은 틈에서 벗어나 깊은 사색의 시간으로 이끈다. 꼭 공연을 관람하지 않더라도, 빛과 그림자가 만드는 풍경을 따라 공간을 거니는 것만으로도 깊이 있는 예술적 경험을 누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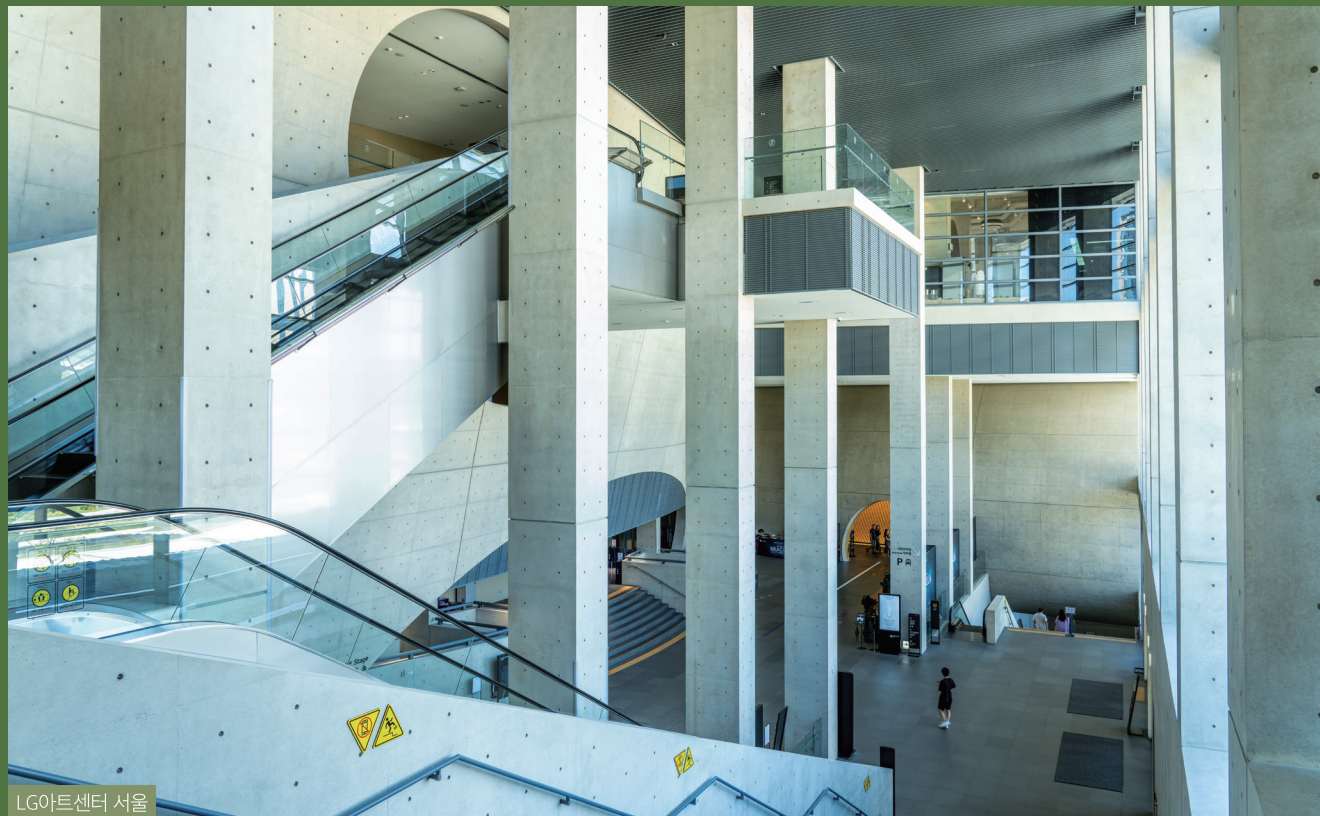


찌는 더위 속에서도 도시는 멈추지 않지만, 그 틈에 숨은 작은 여백이 무더위에 지친 발걸음을 붙잡아 세우고, 그곳에서 도시는 비로소 숨 쉴 틈을 내어준다

마음을 채우는 문장과 맛, 휴식

마곡 업무지구가 더욱 매력적인 이유는 감각적인 지적 충전과 미식의 즐거움이 가깝게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커다란 통창으로 따스한 채광이 밀려드는 세련된 북카페와 독립 서점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나만의 시간에 잠기는 기분을 선물한다. 사각사각 종잇장을 넘기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무게를 내려놓고 가벼워진다. 싱그러운 초록빛 플랜테리어가 가득한 핫플레이스 ‘플라워플로우’는 감각적인 미식과 여유를 더해 휴식의 농도를 한층 깊게 채워준다. 탁 트인 도심 뷰를 배경 삼아 향긋한 커피와 디저트를 음미하며 가볍게 노트북을 펼쳐 업무를 보거나 생각을 가다듬기에도 좋다. 이 밖에 오피스 골목골목 자리한 음식점들과 카페들은 눈은 물론 입까지 즐거워지는 밸런스를 선사한다.

바쁘고 떠들썩한 일상에서 ‘로그아웃’이 간절할 때가 있다. 회색 도시의 반전, 마곡에서 가벼운 해방감을 누릴 볼 것. 일과 휴식, 그리고 맛있는 여유가 어우러진 마곡 라이프스타일은 오늘도 지친 도시인들에게 심표를 건네고 있다.





9월의 붉은 감바스



신혼여행을 준비하며 가장 손꼽아 기다렸던 곳은 스페인이었다. 스페인 요리 중 가장 친숙하게 떠오르는 메뉴를 하나 꼽으라면 역시 감바스 알 아히요(Gambas al Ajillo)가 아닐까.

새우, 마늘, 올리브오일만 있다면 빵이든, 밥이든, 면이든
그럴싸한 집들이 요리가 되기도 하고, 훌륭한 안주가 되기도 한다.

글과 레시피 김희은 셰프 일러스트 냉무

가을의 문턱, 9월 중순쯤이면 우리 식탁에도 살이 차지고 맛이 진해진 대하가 오르내리기 시작한다.

요즘은 머리와 껍질을 모두 제거해 바로 요리할 수 있는 손질 냉동 새우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나의 감바스에는 꼭 머리가 달린 새우가 필요하다. 머리에 붉은 내장이 꽉 찬 대하가 마트에 보이는 날이면, 우리의 장바구니에는 산도가 좋고 드라이한 스페인 화이트 와인, 알바리노(스페인을 대표하는 청포도 품종) 한 병도 어김없이 함께 담겼다.

올리브오일에 버터 한 스푼을 더해 마늘의 향을 충분히 우리고 나면, 이제 진짜 '요리가 시작되는 향'이 난다. 여기에 새우 머리를 먼저 넣고 감자 매서(누름이)로 꺾꺾 눌러주면, 머리의 진한 맛이 배어 나와 오일도 먹음직스러운 붉은빛으로 변한다.

새우 몸통을 넣기 전! 바로 이때가 여러 재료를 더할 타이밍이다. 방울토마토도 좋고, 그린 올리브도 슬라이스해 넣는다. 그리고 나만의 또 다른 킥은 잘 익은 깍두기! 새우 기름에 깍두기라니 조금 낯선 조합처럼 들리지만 생각해 보면 그리 멀지 않다. 삼겹살을 구운 기름에 김치를 올려 굽듯, 맛있는 기름을 머금은 김치는 그 자체로 훌륭한 별미가 된다.



글과 레시피를 보낸 김희은 셰프는 미술생 1스타 레스토랑 '소울'을 이끄는 오너 셰프로, 일상적인 식재료와 장 문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섬세하게 풀어냈다.

새우 머리의 진한 감칠맛이 녹아든 기름에 잘 익은 깍두기를 넣어 천천히 익히면, 깍두기의 새콤하고 발효된 맛은 기름의 느끼함을 잡아주고, 반대로 새우의 고소한 풍미는 깍두기 속으로 스며든다.

돼지기름에 구운 김치가 맛있다면, 새우 기름에 익힌 깍두기가 맛없을 이유도 없다.

그리고 이 깍두기를 한입 베어 물었을 때, 뭔가 기름진 음식에 꼭 빠질 수 없는 김치나 장아찌, 단무지가 생각나기도 한다. 녹두전과 장아찌, 파스타와 피클, 치킨에 단무지, 피자과 할라페뇨 여러 조합이 있듯 나는 새우 기름과 먹는, 아니 새우 기름에 잘 익혀진 깍두기를 꼭 추천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은은한 매운맛을 더하고 싶다면 페페론치노 대신 파리고추를 올려 한국적인 향을 더해봐도 좋다.

감바스 알 아히요(Gambas al Ajillo)

계량 1 큰술 = 15g 1 작은술 = 5g 1 컵 = 250ml

재료

주재료 흰다리새우 10개(EA), 알마늘 10개, 크러시드 레드페퍼 1/2작은술(ts) 또는 페페론치노 3개, 초리소 30g, 블랙 올리브 5개, 선드라이드 토마토 2개, 잘 익은 깍두기 10개, 파리고추 5개, 타임 1줄기, 파르미자노 레자노 1큰술(Ts), 소금 1/2작은술(ts)

오일 오일 150ml (올리브 오일 7 : 카놀라 오일 3, 버터 1큰술(Ts))

부재료 레몬 웨지 1~2개(EA), 스모크드 파프리카 파우더 약간 <바게트 빵 180도 오븐에서 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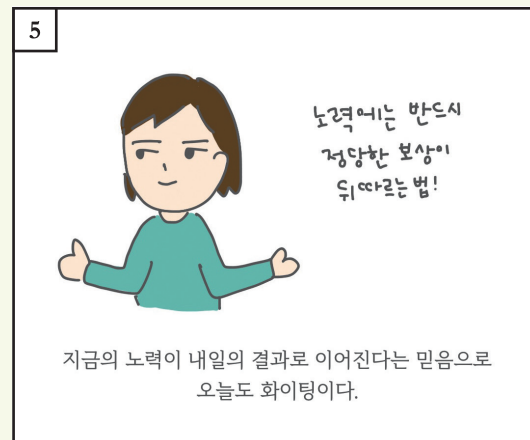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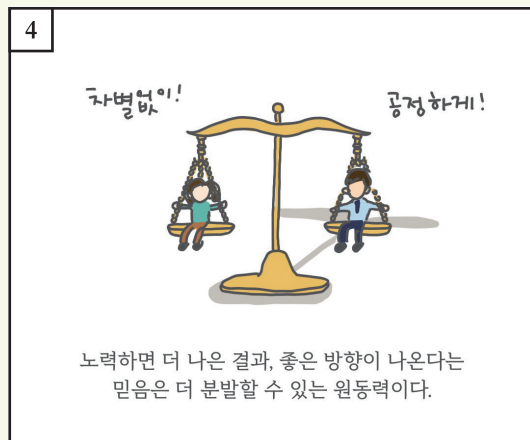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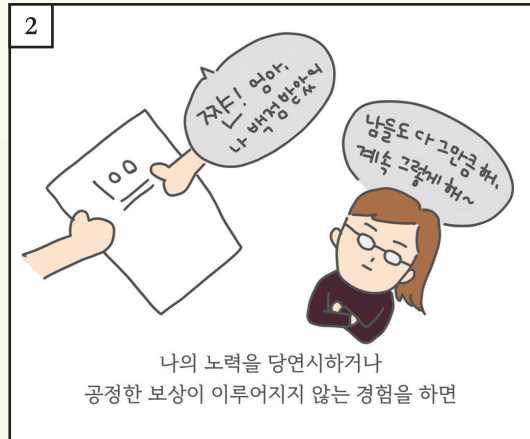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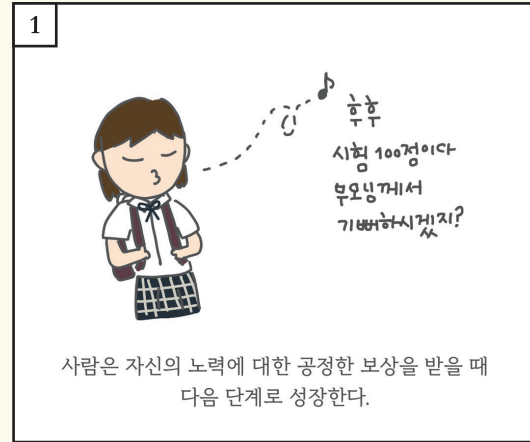
이렇게 만들어요!

- ① (껍질째 있는) 흰다리새우 대가리의 빨과 수염을 제거한다. 소금, 백후추로 밀간해 둔다. (10분)
- ② (팬) 오일과 버터를 넣은 팬에 굵게 썬 마늘을 넣어 마늘 향을 우린다.
- ③ 마늘이 익어가면 크러시드 레드페퍼와 페페론치노, 초리소를 넣어 매운 향을 내고, 밀간한 새우 대가리의 골수 부분을 압착하며 익혀준 다음 새우 몸통을 넣고 2분 미만으로 익힌다.
- ④ 타임, 선드라이드 토마토와 그린 올리브, 파리고추, 깍두기를 넣고 파르미자노 레자노와 소금으로 간한다.

* 새우 머리: 새우 오일의 진한 맛을 위해 가능한 새우 머리(골수) 부분까지 사용한다.
* 크러시드 페퍼, 페페론치노 대신 파리고추를 사용해도 매운맛을 우려낼 수 있다.
* 토스트한 바게트 위에 올려 브루스케타로 응용할 수 있다.

공정한 보상

글. 그림 할리오니(@HALIONI)



나의 세계



독자 후기

「월간 내일」은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함께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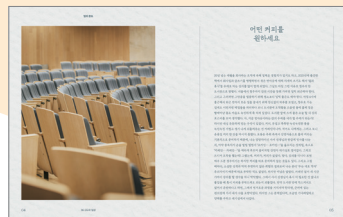
매호 「월간 내일」을 읽고 느낀 점을 남겨주세요.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일의 온도]



신입사원 시절, 혼자 야근하며 많은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 애쓰던 때가 떠오른다. 돌이켜보면 부장님이 갓 입사한 새내기 사원에게 야근하며 매달려야 할 만큼 어려운 일을 맡겼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오히려 당시 완벽주의 마인드가 스스로 그런 태도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 이제는 지혜롭게 에너지를 쓰자. 일의 온도를 낮춘다고 나의 열정이 식는 것은 아니니까.

- 서혜실 독자

[내일 인터뷰]



쉽게 가치를 단정 짓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속도로 묵묵히 걸어가는 구교환 님의 고백이 꼭 내 일기장을 훑쳐본 듯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내 안의 작은 빛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만드는 따뜻한 인터뷰였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가진 모든 이들을 응원합니다.

- 고지수 독자

[글로벌 통신]



칼럼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법정휴가를 보며, 잘 쉬는 것이야말로 오래 일하고 건강하게 잘 일할 수 있는 원천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모쪼록 우리나라도 법정휴가에 대한 가치관을 좀 더 확장하여 건강한 생산성,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진정한 노동 복지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면 좋겠습니다.

- 조한석 독자

「월간 내일」 구독 및 구독 해지 방법

- 1 「월간 내일」 웹진에 접속합니다.
- 2 [QUICK MENU]를 클릭하고, '구독신청 및 해지'를 클릭합니다. 또는 홈페이지 제일 아래의 '구독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3 구독하시려면 '신청하기' 버튼을, 구독을 해지하시려면 '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구독 및 해지를 위해 정보입력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월간 내일」과 함께 하는 QUIZ

「월간 내일」 2026년 9월호를 읽고 독자 퀴즈에 응시해 보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금융, 노동권리 정보 등을 한데 모아 발간한 종합 안내서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 ① <청년 행복 지침서.zip> ②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
③ <내일이 있는 청년 가이드.zip> ④ <청년내일도약 백서.jab>

HINT. 복잡하고 파편화되어 있던 청년 정책들을 청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압축(.zip)하여 묶어낸 자료집의 이름입니다.(14~17p 참고)



“야”, “너” 대신 진짜 이름을 부르며 이주노동자의 존중과 안전을 높이하고자 추진 중인 이 캠페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① 외국인 근로자 상생 지원 사업 ② 다문화 일터 안전문화 운동
③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 ④ 글로벌 노동권의 보호 주간

HINT. 산업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동료입니다. 국적은 달라도 따의 가치는 같습니다. 진짜 이름으로 부름으로써 서로의 존재와 정체성을 인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가기 위한 캠페인입니다.(24~27p 참고)



참여방법 I 이벤트는 QR코드를 통해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 Step 1**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Step 2 이벤트 응모 입력 후 제출

※ 참여기간
2026년 9월 18일(금)까지
※ 당첨자에게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8월호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홍○석(5200)	이○희(7136)	최○혁(9396)
김○정(3591)	김○경(1712)	이○광(7497)
박○화(1273)	원○호(1979)	박○애(4022)